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기치를 들 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어로전사들을 굳게 믿고 오늘을 락관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몸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결사판철하고 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제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귀중한 혁명전우, 참 좋은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을

보니 이곳 수산사업소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러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더 많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사랑의 자욱을 또다시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더 즐기치게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